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창세기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창세기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십자가 은총을 전하는 천국일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가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 말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됩시다.

2006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 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창세기 10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과 땅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1절). 이렇게 10장 자체로만 보면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들이 충만하게 거한 ‘그 땅의 이름’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 약속’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여호수아에서도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장은 단순히 족보 형태를 띤 나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살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편안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은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해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창 10:3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크신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창세기 11장은 한 마디로 '흠어진 속에서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9절까지는 '흠어진'이, 그 뒤에는 '선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부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흠어져 온 땅에 편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힘을 지니기 위해 흠어진을 면하자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벨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계획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흠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를 이루어 갈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을 흠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의 의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데라의 후예를 언급하면서 드디어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본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한 인물 아브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진을 면하자 하였더니"(창 11:4)

기도 제목 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창세기 12장은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자손과 기업,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장차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로 인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람의 소명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람을 통하여 인류의 구속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등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명령에 아브람은 순종하였습니다(4절). 먼 길을 떠나야하는 아브람은 아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에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창 12:4)

기도 제목 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재산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없었던 아브람 부부에게는 조카 롯이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정하게 함으로 롯을 분가시켰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을 택한 것은 육신의 안목을 좇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혼자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롯의 가정이 떠나 버리고 난 그 자리는 아브람 부부에게는 무척이나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14-16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창 12:1,2). 아브람, 그에게는 지금 땅도 자손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 버린 아브람의 빈 자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깊은 삶의 공허감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빈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공허한 마음과 영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창 13:14)

기도 제목 ①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수요 1-2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인간적으로 삶의 터전을 선택하였던 롯은 그만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살던 당시 싯딤 골짜기 근처에는 아홉 왕들이 각자의 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네 명의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롯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롯으로부터 서운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뒤를 쫓아가 롯을 구해 내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른 아브람이 이 일을 계기로 매우 귀하고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찾아 기쁨 가운데 귀환하는 아브람에게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고 또 그 싸움이 분명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기꺼이 소득의 십일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생명을 걸고 얻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의 이러한 물질관은 물질이 만능이요 우상이 되어 버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 14:20)

기도 제목 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브람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엘람 동맹국을 격파한 결과 자신이 얻은 대가는 없고 오히려 그들의 반격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장은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약속과 언약을 소개합니다. 먼저 커다란 불안함에 직면한 아브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1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람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람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의로 여기셨습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람에게 확증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만일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쪼개진 고기와 같이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냥 말로만 약속하셔도 되셨는데,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체결한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낙심할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을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기도 제목 ① 주님만을 인생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게 하소서. ② 금요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도 아브람은 자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인 사래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후손을 얻으라고 아브람을 권유하였습니다. 사래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아브람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보다는 아내인 사래의 말을 따라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람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싹트었으며(4-6절), 두 여인의 아들들에게서 난 후손들도 오랜 세월을 걸쳐 서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아브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되, 자신이 정해놓은 어느 선까지는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두어 두고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십 년 후이었더라”(창 16:3)

기도 제목 ①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5절). 이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 사건으로,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같은 믿음의 삶은 ‘할례’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과거와는 철저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같은 할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의 본래의 도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음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29). 이같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역시 행동과 내면 모두에 걸쳐 진정한 믿음의 표식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찌라”(창 17:4)

기도 제목 ① 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22개 교회학교에서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습니다(16-21절).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간곡한 중보의 기도를 여섯 번이나 드렸습니다(22-33절). 특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혈육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가 아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절한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믿음의 성도들 역시 때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기억할 때,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창 18:32)

기도 제목 ① 참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죄로 인해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찾아왔으며 유황불에 의해 철저히 시행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불신자들은 이 사건을 단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쯤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오늘날의 고고학적 자료들은 당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죄에 대하여는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까지도 버리고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과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다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 멸망하는 비극이 결코 없도록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창 19:13)

기도 제목 ①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브라함은 과거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했던 거짓말을 다시 한 번 아비멜렉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장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비멜렉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얻은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8-18절). 즉 본 장의 주제는 결국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도덕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역시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든지 온갖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성도들을 지키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창 20:2)

기도 제목 ① 강건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던 언약의 후손을 얻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기쁨,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 기다림만큼 어려운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품는 인내와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그분의 재림을 통한 천국의 영광을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삭(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육체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택함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죄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 세라”(창 21:5)

기도 제목 ① 주를 향한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아마도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 최대의 고비이자 가장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지체치 않고 순종했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사흘 길 동안에도 일관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큰 고통과 언약에 대한 확신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메시야에 대한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결코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만큼은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요 아픔이었는데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삭이 죽음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 역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신비이자 역설이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하소서. ② 금요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소유를 통해 장차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사를 위해 당시 철기 문명을 배경으로 급성장한 헷 족속의 영토인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5). 특히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장지로 매입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상 장지는 개인이 아닌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유업으로 물려지는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요셉까지 여기에 묻힌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막벨라 굴은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약속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의 매입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듯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현재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창 23:19)

기도 제목 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성도 간의 결혼에까지 간섭하셔서 언약의 혈통을 이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심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순수한 언약의 혈통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메소보다미아로 보냈습니다(1-9절).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며, 본인과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얻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사의 세세한 곳까지 직접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합니다.

근래 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로는 신앙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물질과 배경, 학벌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결혼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 언약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불신앙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젊은 청년들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조건으로 삼을 줄 아는 믿음의 젊은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창 24: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복음의 나팔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신약 성경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배경과 성령에 의한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 속에 실제로 임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이 암시해 주고 있듯이 1-17절이 보여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곧 구원의 조상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의 표상입니다.

본 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 장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은 다말과 라합과 룯과 우리야의 아내와 마리아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라합과 룯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맺고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 솔로몬을 낳습니다.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굳이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족보 자체로 볼 때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운 족보 속에 메시아를 탄생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

기도 제목 ① 우리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② 나의 이웃과 교회 주변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대한 헤롯의 광적인 반응,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과 나사렛 정착 등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 장은 예수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가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인식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경배받으실 분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주이심을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온 땅과 온 인류를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그 빛은 머나먼 동방까지 비추어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좇아온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 빛을 보고도 믿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나심을 예언(미 5:2)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된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거부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빌 2:15).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2)

기도 제목 ①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요단 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1-6절).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7-10절). 그리고 자기의 뒤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메시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11,12절).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세례받을 자는 자신이라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시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13-17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나무의 생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삶의 뿌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온전히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 3:8)

기도 제목 ①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보혈의 은혜로 살며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에게 종 노릇 하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패배의 삶에 대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되 이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 일보 직전의 한계 상태에서 마귀의 강력한 도전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에 굴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즉, 마귀의 세 번에 걸친 유혹을 예수님은 매번 '말씀'(신 8:3; 6:13; 6:16)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이기도록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죄를 이기어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얻을 것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승리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육체를 입으신 상태에서 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기도 제목 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깊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란 자기 권리에 얽매어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죄악 된 세상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확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대속적 사역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에는 하늘에 큰 상이 있다(12절)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여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2)

기도 제목 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② 파택장로님들의 주제발표를 통해서 참 제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25절).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지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26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도, 당장 있는 동안만큼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 주십니다(28-30절). 예수님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답답해 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염려들은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세상의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31,32절).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해 봐야 소용도 없는 염려는 다 털어 버리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입는 문제’를 초월하여 추구해야 할 더 고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33절). 우리는 단지 생존 자체만을 위해 살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 뿐이며, 우리의 본향,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기도 제목 ① 땅엿 것을 소망하지 말고 위엿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소서. ② 위임독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천국백성의 삶의 특성은 한마디로 '넓은 문을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편한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13,14절). 온갖 종교나 철학이 제각각 나름대로 영생에 이르는 문과 길이 있다고 강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들어가고(요 10:7-9), 오직 단 하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요 14:6).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의 많고 많은 문과 길을 다 배제한 채 단 하나의 문과 길만을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것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과 길을 다 버리고 단 하나를 선택하여 거기에 전부를 걸었는데, 선택한 그 하나의 문과 길이 또 얼마나 험하고 험든지..., 그 길은 외부로부터의 술한 오해와 비방과 핍박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온갖 저항과 반발과 반역에 맞서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질기고도 강한 죄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15-23절). 말씀의 실천을 통해 어떤 홍수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을 세워가야 할 힘겨운 길입니다(24-27절). 넓은 문을 지나 편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갈등하고 유혹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과 이 길로만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문 안에만, 그 길 끝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문으로, 그 길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우리가 됩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4)

기도 제목 ①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학습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보고 절대 신앙을 나타낸 가버나움의 백부장(5절)과는 달리, 그러한 권세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나가시기를 간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로, 예수의 권세에 의해 쫓겨난 귀신들로 인해 자신들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자 그 이상의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구원해 주실 분을 쫓아내는 짓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28-34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 특히 돈을 섬기면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썩어질 것,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돈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서는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른 다음에 주님을 쫓을 것을 청하는 제자의 부탁도 거절하셨습니다(21,22절).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처럼 눈 앞의 이익이, 부친을 장사지내는 긴급한 일이 중요한 우선 순위를 지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선 순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눅 14:26). 우리의 우선 순위는 어떻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기도 제목 ①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 주시지 않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죄 사함의 선포에 대하여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 사함의 선포가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쉬운 쪽을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사함의 선포는 외관상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은 외관상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얽박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2-8절).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죄의 올무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지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바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 9:6)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진리를 늘 깨닫게 하소서. ② 제 3차 청지기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중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탁월하게 인정받던 이들이 아니라 '학문 없는 범인' (행 4:13)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평범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주의 신실한 종이 되는 일은 특정한 사람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6절). 제자들이 전파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왔다"는 것(7절)으로, 예수 안에서 죄 사함과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거저 받은' 자로서 '거저 주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이 그것을 값없이 전하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 일에 대가 없는 헌신을 하게 합니다. 주의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대적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반대를 예상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마 10:7)

기도 제목 ①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임직된 분들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를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마 3:7-10 참고). 하지만 주님은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죄인을 영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만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사 29:18; 사 35:5)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5절).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를 비롯한 온 세상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예수께서 큰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주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16-19절).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회개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내용은 예수께서 복음으로의 초대를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20-30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신 주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27절). 따라서 구원을 얻는 일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마 1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오히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십니다(1-8절). 이 후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를 바라보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선하다고 증거하신 주님은 그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9-13절). 또한 바리새인들은 소경과 병어리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귀신의 사역일 뿐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비난이 논리적으로 모순임을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 성령을 통하여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28절).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어두운 마음은 자신들이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역사로 전락시키는 엄청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후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의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고 답변하십니다(38-45절). 이는 십자가와 부활만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지요,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이지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8)

기도 제목 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따르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1-23절), 가라지 비유(24-30절), 겨자씨 비유(31,32절), 누룩 비유(33절),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34-43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44-46절),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47-50절). 또한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 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51,52절).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으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이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53-58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풀지 못할 '비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앞에서 고쳐지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고의로 귀를 막아 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버리기가 가까운 귀한 보석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를 믿게 된 자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17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마 13:11)

기도 제목 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그 비밀을 전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이 인류를 모든 부족함과 죄의 고통에서부터 구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께서는(13-21절) 그 후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뒤 예수께서는 거센 물결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22-27절).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28,29절).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 풍랑이 일자 베드로는 곧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30절).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으나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겨지자 곧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외쳤듯이 진심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30절)라고 외친다면 주님은 피물은 손으로 즉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들인 배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34,35절). 그 결과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36절). 진실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지 못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리는데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줘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마 14:3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② 오직 말씀으로 개혁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1,2절). 그들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주님은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전통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되거나, 그 전통이 말씀을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십니다(8,9절). 이것은 곧 '외식하는 삶'입니다(7절). 주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샘으로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귀신들려 고통 당하는 딸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22절).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대답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감동시킨 것은 스스로를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27절). 그녀는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다만 개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인의 순결하고 눈물겨운 간청에 주님은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27,28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마 15:28)

기도 제목 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39에서 하신 답변 그대로 말씀 하시고(1-4절) 누룩, 즉 종교적 외식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5-12절).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는 축복을 받는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반대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13-23절). 이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24-26절).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분명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음부의 권세까지라도 물리치며 주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일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즉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주 힘든 싸움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새 생명으로의 영광스런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십자가를 붙들며 진군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10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 은총을 전하는
천국일꾼

십자가 은총을 전하는 천국일꾼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빛진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제자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추수할 것은 매우 많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총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 점
0929	롬 1:14~17	제자의 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1006	롬 12:1,2	거룩한 산 제사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1013	요일 3:1~3	신자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재림을 소망하라
1020	눅 10:1~3	풍성한 추수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1027	요 19:25	십자가 곁에 서서	은총을 덧입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제자의 태도

| 초점 |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 찬송 |

찬송가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본문 | 로마서 1:14~17

¹⁴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¹⁵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¹⁷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롬 1:14,15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롬 1:17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_____
기록된 바 _____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정 직

바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롬 7:14

롬 7:24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노력으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위를 바꿀 수가 있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렘 31:33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에 두며 그 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 령

바울은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팽팽한 긴장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갈 5:17 / _____ 거스리고 _____ 거스리
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니라

인간은 자신의 육체와 지혜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진짜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인간의 육체는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갈 5:22,23

영혼 사랑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고 이 진리에 대해 빛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 복음에 대해 빛진 자라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고전 15:5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노니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딤후 1:12 /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함이라

롬 11:13 /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스럽게 여기노니

모든 신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는데 사
용하고 있습니까?

벤전 4:10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롬 15:29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
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찬양했습니다.

갈 6:14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자로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 제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전해주어야 할 빛진 자입니다. 나의 의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최고입니다.” 주님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소서
3. 영혼을 사랑하며 십자가 은총을 나누어 주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과 거룩한 산 제사

| 초 점 |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 찬 송 |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본 문 | 로마서 12:1,2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편지를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롬 12:1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하고 완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몸이었습니다.

롬 12:2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_____ 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의 몸에 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몸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몸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시 139:13,14 / 주께서 내 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하셨나
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타락한 몸

죄는 인간의 몸을 타락시켰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롬 6:23

죄는 잡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롬 5:21 / 이는 ☐가 사망 안에서 ☐노릇 한 것 같이 ☐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새롭게 된 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롬 10:9 / 네가 만일 _____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_____ 구원을 얻으리니
요 3:3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_____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일 1:9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몸

여러분의 몸이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

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좁은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딤후 4:12 /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몸의 회복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후 5:17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엡 4:22~24 / 너희는 유흥의 ☐☐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 예뻐지기 위해 미용실에 다니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새 옷을 사거나 성형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세상의 것을 좇아가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마 24:4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완전한 인간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산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 제사로 드리지게 하소서.
2.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3.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신자의 소망

| 초 점 |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재림을 소망하라

| 찬 송 |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송가 538장 예루살렘 금성아

| 본 문 | 요한일서 3:1~3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곧 그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일 3:1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안겨 줍니다. 신자들은 과연 어떠한 놀라운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말할 것도 없이 신자의 소망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신자의 소망은 단순히 이루어 지길 바라는 생각이 아니라 확고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4:3 / 가서 너희를 위하여 □□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계로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이 가까와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재림을 향한 신자들의 소망은 진짜입니다.

골 3:4

약 5:8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요일 3:2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더럽고 부패하여 전혀 가망이 없는 모습을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 여러분에게 이런 설레임과 흥분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똑같이 될 것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고전 15:52,53 /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_____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소망

신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전 13:12 /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과 ☐☐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히 알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을 소망하십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분의 얼굴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은 가슴 벅찬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준비

신자들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과 같이 될 것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요일 3:3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하심과 같이 자기를 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부정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벧전 1:16 / 기록하였으되 _____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설교문 참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고후 7:1

여러분의 소망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한 몸과 행복과 가정,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소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적인 것에 얽매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요일 2:28). 여러분의 소망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을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재림을 소망하게 하소서
2.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소서
3.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4과 풍성한 추수

| 초 점 |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 찬 송 |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 본 문 | 누가복음 10:1~3

¹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²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³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칠십 인을 세워 자신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눅 10:2,3 /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소에 상관없이 단지 어디든지 가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 주님은 한 장소에 갈 한 사람을 택하신대(설교문 참조).

※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님은 개개인의 모든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십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하 7:14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하고 □□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일꾼이 적으니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곳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절반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 추수할 곡식은 □□□이며 밭은 □□을 가리킨대(설교문 참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잃어버린 영혼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할 일꾼들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21세기의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꾼들이 거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억지로 갈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 그리스도인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설교문 참조)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일꾼들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행 13:23 / ☐☐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

일꾼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요 4:35 /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_____ 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_____ 하게 되었고도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아가라

지금은 너무나 바쁜 때입니다. 그러므로 놀거나 빈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손이 필요하고 일꾼들은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 추수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설교문 참조)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의 성령이 어디로 또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칠십 명의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추수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상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눅 10:20 / 그러나 _____ 으로 기뻐하지 말고
_____ 으로 기뻐하라

십자가로 路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소유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분만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라, 가라, 가라고 명하시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 여러분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전히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의 일꾼이 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2. 추수할 영혼들을 향해 자원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5과 십자가 곁에 서서

| 초 점 |

은총을 덧입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 찬 송 |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

| 본 문 | 요한복음 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기 위해 갈보리 산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날과 같이 그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이유와 그릇된 태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참으로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 27:20 /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외심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갈보리 산에 있었던 많은 무리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 19:6 / □□□에 못 박게 하소서 □□□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를 찾지 못하노라

로마 군병들

군병들은 십자가 곁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들에 대해 적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	--	--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병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총독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 빌라도에게 있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설교문 참조)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막 15:15).

많은 무리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 6:5 /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진지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지만, 주님을 위해 싸우기 보다는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것이 그들이 행한 전부였습니다(눅 23:27).

참 제자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나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지만 진정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 19:25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용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요 19:38,39). 예수님 곁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히 13:12,13 /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눅 23:34)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죄 사함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강도처럼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가 되십시오.

벧전 2:24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말 뿐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말하지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적은 무리에 속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路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는 의로운 소수입니까? 죄에 속한 다수입니까?

우리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올바른 관계 형성에 대해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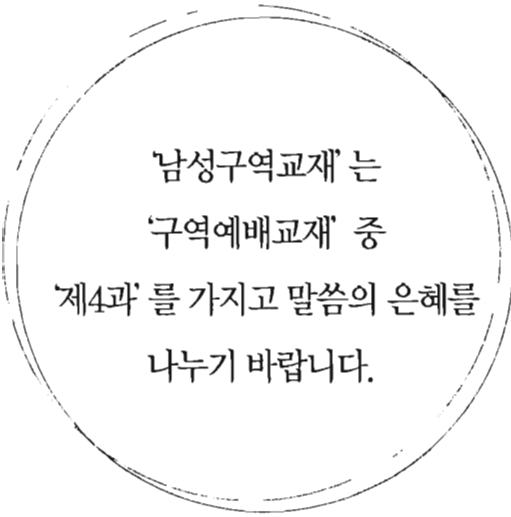
행 4:12 / 다른 이로서는 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을 얻을 만한 다른 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유일한 구원의 길인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 간절한 기도 |

1. 은총을 덧입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3.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을 걷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교재



‘남성구역교재’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수

①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②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③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1~3)

예수님은 칠십 인을 세워 자신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2,3절).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로 보내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소에 상관없이 단지 어디든지 가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장소에 갈 특별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님은 개개인의 모든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국제 정세나 개인적인 일에 더 쏠려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있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사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무엇을 거두어야 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사람들이며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마 13:38).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곳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절반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잃어버린 영혼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할 일꾼들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편 126:5,6에 묘사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21세기의 교회에는 일꾼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억지로 갈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 었고”(요 17:1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요 1:6). 이처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섬

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행 8:26). 일꾼들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일꾼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35은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도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모순입니다! 부디 영의 눈을 떠서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지금 나아가라

추수할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과가 익을 때 재빨리 따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썩고 맵니다. 추수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쁜 때입니다. 그러므로 놀거나 빈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손이 필요하고 일꾼들은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30:5은 말합니다.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의 성령이 어디로,

또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일로 너무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소유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만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라, 가라, 가라고 명하시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예수님은 칠십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눅 10:5~11).

칠십 명의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추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 이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제가 충현교회에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십일조를 바치는 교인수가 칠천 명이라는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저는 칠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미 8,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들 곧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10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황진섭(1-7일), 이정훈(8-15일), 김태석(16-31일)

구역예배교재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매월]
